

보도자료

이 자료는 7월 17일 14: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및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7월 17일(목)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
 -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부터 개최
 - 이번 심포지엄은 호남권 최대도시 광주에서 개최하며, 세션Ⅰ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대응방안”을, 세션Ⅱ에서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논의
 - 동 심포지엄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개회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및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
 - 발표자료 주요 내용,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 등은 <붙임> 참조
- ※ 개회사는 별도 배포 예정

문의처 :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연구지원팀 팀장 김민수, 과장 선진산

Tel: (02) 759-4104, 4145 Fax: (02) 759-4044 E-mail : bokregcop@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1. 발표자료 주요 내용(요약)

<세션 I> 발표 1

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동향과 전망

김기훈 (고려대학교 교수)

- **[국내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평가]** 국내 온라인 소매는 편리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소매를 대체하며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도 확대
 - 우리나라 대형마트 점포는 '19~'24년중 35개점이 폐점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소매판매는 증가하며 전체소매시장에서의 온라인 소매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2000년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시장의 도래' 이후, 2010년대 배민, 야놀자 등 '온라인 to 오프라인 서비스 확산'을 거쳐 2020년대 쿠팡, 토스, 네이버 등 수직통합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AI융합'의 시대로 돌입
 - 최근 들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경쟁력과 상품 다양성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품질에 대한 우려, 긴 배송기간, 이용상 제약 등으로 인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AI 도입에 따른 변화 및 전망]** 생성형 AI가 빠르게 도입되며 플랫폼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인 시장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소비자의 구매방식이 '검색'에서 '대화형 답변'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검색엔진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AI 에이전트의 활성화로 소비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비교 검색하는 '멀티 호밍'현상이 확산되면서 선도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지역특화 플랫폼과 같은 소형 플랫폼의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세션 I> 발표 2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

* 자세한 내용은 <BOK이슈노트 제2025-19호> 및 기자 백브리핑 자료 참조

- **[연구배경]**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가능성
- **[자영업 양극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확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점포형태,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
 - **(온라인유통플랫폼(소매업))** 수도권의 무점포소매업체(통신판매 등) 집중, 비수도권의 전통적 점포소매의 쇠퇴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점포소매업 내에서는 규모가 크거나 온라인판매 도입, 또는 상품구성이 다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경영성차가 양극화
 - **(음식배달플랫폼(음식점업))** 업체규모, 업력, 배달비중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규모에 따른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짐
-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자영업 업황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금융지원^{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한 결과, 매출증가, 폐업확률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문별로는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 그 효과가 집중되었고, 소액지원(2천만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 효과가 미미
 - 생산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매출감소 업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기간중 효과가 낮은 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향후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 두트랙으로 추진
 - ① 금융지원은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하여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

- ② 실업보험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대상 확대, 수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 ③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추진,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노력 등과 함께 지역 자영업 지원기관의 제도 기획 및 지원대상 선별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

<세션 II> 발표 1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포괄적 전략: 메가샌드박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외적으로 AI 등 첨단산업과 기후관련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로 성장잠재력이 약화

○ 미·중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기후위기 대응도 실제 행동을 요구하는 '실천적'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경제안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첨단산업과 기후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

○ 한편 국내 경제는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연금과 재정 등 사회경제 시스템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는 상황

□ **[국가전략 제안: 메가샌드박스]** 저출생, 지역소멸,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 등은 상호연계된 문제이므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메가샌드박스*를 제안

* 광역거점도시 또는 그 인근에 ① 특화 산업 지정, ② 에너지 공급과 R&D지원, 대학·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조성, ③ 산업단위의 규제 대폭 유예, ④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 첨단산업과 기후산업의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테스트가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감한 지역 단위의 인센티브가 필요

○ 즉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광역거점도시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집중 도입함으로써 신기술과 신산업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메가샌드박스')를 조성할 필요

— 이를 통해 해당지역에서 앵커기업*과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육성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며 수도권 집중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해당 지역이나 산업 내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기업

<세션 II> 발표 2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에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대학 경쟁력 평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진단한 결과,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진 반면,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생의 실질임금이나 숙련도 등 인력양성 지표에서는 비수도권 국립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공동 특허 출원 등 협력적 혁신활동이 증가한 반면, 지역 내 산업 및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은 다소 미흡
- **[지역거점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과학기술원(DGIST, UNIST) 신설사례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과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지역거점대학 육성은 지역 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 **[시사점]**
 - ① 지역거점대학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책자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
 - ②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의 혁신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이전 등 대학과 지역경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거점대학과 비거점대학 간 기능적 연계를 구축할 필요(허브 앤 스포크 모델)

2.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주 제: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
-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2:00~5:10
- 장 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Opening	
14:00~14:20	■ 개회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축 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영상)
Session 1: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도전 및 대응	
14:20~14:45	■ 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동향과 전망 - 김기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45~15:10	■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 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
15:10~15:35	■ 세션1 토론 - 사회자 :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 토론자 : 신위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하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35~15:55	Coffee Break
Session 2: 지역경제 발전방안	
15:55~16:20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포괄적 전략: 메가샌드박스 -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16:20~16:45	■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6:45~17:10	■ 세션2 토론 - 사회자 : 박완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토론자 :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 프로그램 참가자 이력사항

이름	김기훈 (세션 I 발표)
학위	스탠포드대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박사
현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요 경력	- (전) PwC Consulting Management Consultant

이름	정희완 (세션 I 발표)
학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현직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
주요 경력	-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이름	박양수 (세션 II 발표)
학위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현직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주요 경력	-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름	서성민 (세션 II 발표)
학위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경력	-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름	김 용 (세션 I 토론회)
학위	텍사스A&M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조사국장 -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이름	신위뢰 (세션 I 토론패널)
학위	펜실베이니아주립대(PSU) 경제학 박사
현직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 경력	- (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름	주하연 (세션 I 토론패널)
학위	펜실베이니아대(UPenn) 경제학 박사
현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 경력	- 오하이오대(Ohio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이름	박완근 (세션 II 토론사회)
학위	다트머스대 경영학 석사
현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주요 경력	- 한국은행 발권국 부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팀장

이름	오병기 (세션 II 토론패널)
학위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직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요 경력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위원

이름	차성현 (세션 II 토론패널)
학위	플로리다주립대 철학 박사
현직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요 경력	- (전)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심층기능진단 분석위원 - (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분석위원